서울주보

제2550호
2025년 3월 23일(다해)

사순 제3주일

포도 재배인과 무화과나무
제임스 티소
(James Tissot, 1836-1902)
1886-1894, 회색 종이에 구아슈(불투명 수채), 14.6x19.4 cm
브루클린 미술관, 미국 뉴욕

입 당 송 | 시편 25(24),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 탈출 3,1-8ㄱㄷ.13-15

화 답 송 | 시편 103(102),1-2.3-4.6-7.8과 11(◎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2독서 | 1코린 10,1-6.10-12

복음환호송 | 마태 4,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 음 | 루카 13,1-9

영성체송 |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s://cc.catholic.or.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 tv 29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기다림

지영현 시몬 신부 | 압구정1동성당 주임

저의 첫 번째 주임신부님은 몇 년 전 선종하신 황인국 마태오 몬시뇰이십니다. 몬시뇰님은 저의 사제 생활과 본당 사목의 롤모델이십니다. 사목 생활 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몬시뇰께선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을 찾곤 했습니다. 몬시뇰께선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식사 시간 중에 본당 사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몬시뇰께선 늘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조언해 주셨는데 이는 칭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도 않으시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수정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처럼 몬시뇰께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일에는 침묵하시며 제가 깨닫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다른 한 분은 고등학교 시절 주임신부님이셨고 신학교에선 영적 지도자셨던 김창훈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성적 모토는 '네 꼴대로 살아라.'입니다. 젊은 사제가 아버지뻘 되시는 신부님과 지내며,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신부님은 '네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야단치시기보다 제가 잘못을 깨닫고 올바로 사제 생활을 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부님께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다려 주신 신부님들께 돌봄을 받으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몇 년 동안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주인은 자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포도 재배인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 잘라 버리십시오."(루카 13,8-9) 강론을 준비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바로 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으신 어른들이 계셨음을 또 깨닫습니다. 그 포도 재배인들이 계셔서 오늘의 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포도 재배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도 재배인의 말을 믿고 또 한 번 기다려 주신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잘못에도 야단치시기보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실 그분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 시기를 뜻깊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성화 해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밭이 아니라 포도밭에 심겨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밭주인은 3년을 기다립니다. 포도밭 재배인은 몸을 낮추어 주인에게 시간과 자비를 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심겨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께서는 거름을 주며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말씀의 이삭

벼랑의 끝자락에서

정미연 아기 예수의 데레사 | 성화 작가

《그림으로 보는 복음 묵상》 책에 담긴 성화로 전국 순회전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부득이하게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가슴 저린 때였지요. 1년여 시간이 흐른 다음, 그동안 그렸던 주보 표지화를 비롯해 새로운 작품 몇 점과 브론즈로 만든 14처로 '현존'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품 속 200명의 군상을 그리던 중 갑자기 심한 갈증과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과로와 당뇨 체질 때문일 거라 가볍게 여기며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 쪽은 초기에 발견하기 힘든데 1기에 발견된 것은 행운이라고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주인공 없는 전시회는 예정대로 열리고,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저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으며, 휘몰아치듯 저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고 네 가지 항암제 중 마지막 주사는 44시간이나 맞아야 했습니다. 약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울렁이는 구토 때문에 휴지통을 껴안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노란 쓴 물까지 쏟아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픔과 외로움으로 얼마나 긴 밤들을 하얗게 보냈는지요. 12차례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던 때는 제 삶이 바닥을 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린 체념의 시간, 울기에도 지쳐버린 체력,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제 이름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 번민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 받기만 한 마음의 빚, 낭비, 질투, 거짓, 양심의 가책…. 온갖 마음의 찌꺼기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벼랑의 끝자락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바보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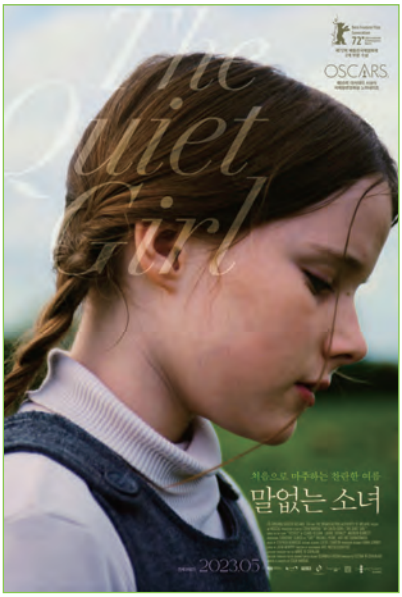
사도 바오로 순례길을 함께했던 93세의 소티리오스 정교회 대주교님께서도 같은 시기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그분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아 아픈 몸을 이끌고 가평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을 떠올리며 아픔을 봉헌하고, 그 순간 주님의 은총을 체험해 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임은 순교의 정신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링거에서 떨어지는 항암제 한 방울 한 방울을 연옥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기도 방울로 바치니 아픔이 점점 희석되어 갔습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 속에서 기쁨이 자리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제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작은 어떤 것도 예전과 달리 보이는 세상에서 감사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지금, 아픔 속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께 저의 초라한 글을 바칩니다.

한컷 묵상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7)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말 없는 소녀〉 The Quiet Girl
2022년작, 콤 베어리드 감독

희망영화관

: 희망의 순례자

희년을 맞아 서울주보는 희망을 주제로 다양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희망 영화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희망의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고, 서사 안에 이를 잘 담아낸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와 함께 희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김상용 도미니코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아직은 이른 봄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물골에 다다랐을 때, 어두움 한가운데서 수변의 단구형 지형의 돌 위에 야광체의 두 눈을 가진 생명체와 정확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달이었습니다. 거대 도시 한 복판에서 1급수의 수질에서만 서식하는 수달을 만나리라고는 가히 상상도 못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야생의 그 생명체가 도심의 저녁 산책을 즐기던 낯선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바로 줄행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3초간의 시선의 교감이 이뤄진 후, 마치 자기가 갈 길을 가겠다는 듯이 수변으로 몸을 담그고는 유유히 사라져 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경이로운 시선의 교감을 증거해 줄 목격자가 없다는 안타까움이 올라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사라져 가는 수달을 향해 가만히 서서 어떤 존재와 처음으로 '살아있음'에 대해 서로 경축하는 의미로 고요히 오른손을 치켜들고 가볍게 몇 번 인사하듯 흔들었습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각자의 생명체에 마음을 다해 서로의 시선과 마주하려는 태도는 비록 저에게서는 우연한 일로 벌어진 선물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 '타자의 시선과의 응시'를 자기 삶의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인 클레어 키건(Clarie Keegan)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아일랜드 영화 〈말 없는 소녀〉는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타자와 시선을 교감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자신의 목소리를 미처 갖지 못한 존재들을 가끔, 아니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렇듯 목소리를 갖지 못한 존재들은 대부분 유력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기에 숨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재의 수요일 전례를 통해 복음으로 들었던 마태오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숨어계신'이라는 말은 원래 '봉인되다'라는 성경 원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봉인된 시선 가운데 머무시는 하느님을 찾는 행위의 첫걸음은 우리 시선에서 사라진 존재들과 마주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화 〈말 없는 소녀〉는 소녀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존재들과 관계 회복을 꿈꾸게 해 줍니다. 아울러, 우리를 양육한 힘들이 단순히 가족이라는 생물학적인 관계를 훨씬 초과하여 우리 자신을 인격으로 키운 모든 존재들을 '아빠'라는 호명으로 새롭게 정립해 줍니다. 우리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열고 너무나 미약하고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아 소홀하기 쉬운 숨어있는 존재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나누어 주는 행위를 교회는 '자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 시기를 살며 남을 돕는 행위는 우리의 자비심을 남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넘어서서 봉인된 우리의 고결한 마음을 비로소 열어 타자에게로 시선을 향하게 되는 나아감입니다. 이렇게 타자를 향해 시선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홀연히 마주하게 되는 어떤 숭고한 정신을 조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나 아닌 존재에게서 느끼는 본연적인 설렘을 동반한 경이로운 열림, 희망 말입니다.

기도의 방정식 (루카 11,5-13)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수학에서 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혹은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X+2=5'라는 등식이 있다고 할 때, X의 값이 3일 때에 이 등식은 참이 되지요. 따라서 방정식을 풀 때는 X의 올바른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정식 문제를 내시는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X의 올바른 값을 찾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주신 방정식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종류는 '기도의 방정식'입니다.

루카복음 11,5-13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1-4절)를 알려주신 이후에, 기도하는 이의 자세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간청하라는 것'(5-8절)과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이 기도하라는 것'(9-13절)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9-10절) 즉,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청하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성령'이지요. '끊임없이 기도'(5-8절)할 것을, 그리고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9-12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느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13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방정식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하고 싶은 내용을 X라고 해 봅시다. 그에 더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는 끊임없이 청하고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성령입니다. 이것을 수식화해 보자면, 'X(우리의 기도 내용)+끊임없이 찾고 청하기=성령을 보내주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 내용인 X의 값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찾고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아마도, 개인의 명예나, 사적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내용의 기도는 성령을 받기에 적절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치셨듯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청할 때, 하느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백근재 도미니코 사비오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교육부

선물하실 때, 받을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직접 고민해서 선물을 선택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보다 직접 고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도 제게 필요한 선물보다는 상대방이 저를 생각해서 고른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수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중 가장 큰 선물은 청소년 친구들입니다. 주일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주 꾸준히 성당을 나오면서 어떤 일에도 솔선수범하여 큰 의지가 되는 친구도 있고, 활발하고 리더십이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늘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 노래를 정말 잘 불러서 성가를 부를 때 빛이 나는 친구도 있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교리 시간에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대답도 잘하는 친구들이 교사 생활중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의 관심을 더 필요로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성당에 오면 늘 혼자 있기를 선호하여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장난기가 너무 많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저를 지치게 하는 친구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하지 않거나 단답형으로만 대답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힘든 친구들, 날카로운 언행으로 때론 상처를 주는 친구들…. 저도 동료 선생님들도 이런 청소년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아 교사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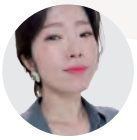
하지만 문득 저에게 맡겨진 청소년 친구들도 우리가 선물을 고르듯 하느님께서 정성껏 마련하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만 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느님께서 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저를 통해 이 친구들이 가정이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주일학교 안에서 느끼게 하여,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름'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서 더 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서랍 속 구석에 자리하던 원치 않았던 선물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쓰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선물이 그제야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이 선물을 주었구나!' 하면서 더 큰 기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도 제가 원하는 선물만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늘 좋은 것만 주셨다는 것을 청소년 친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년을 맞아 서울주보는 희망을 주제로 다양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人'**은 우리 시대에 희망과 신앙의 표지가 되는 평신도들의 삶을 조망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교구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평신도들을 기리며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이라는 이름으로 평신도 기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그간 기림 미사로 기억했던 평신도 다섯 분의 삶을 희망의 관점에서 조망하며 희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희망人

평화를 위하여 : 안중근 토마스



서희정 마리아 | 작가

조선인 수감자 안중근 선생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선생은 아침저녁으로 자신이 믿는 신(神)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청을 하는 모양이라 생각했다. 대 일본제국의 최고 권위자인 이토 공(公)을 살해했으니,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모양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4개월가량 간수로서 지켜본 바로는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재판장에서 들은 그의 변론과 관련된 기도일지도 모른다. 선생은 이토 공을 살해한 이유를 15가지나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열두 번째 이유는 나에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되었다. "열두 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조선이 아니라 동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내 나라뿐 아니라 더 큰 세상을 염려하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왜? 무엇 때문에? 그가 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그가 줄곧 쓰고 있는《동양평화론》이란 글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진 출처 |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아카이브 소장 한국 사진

난 그에게 빌렘 신부가 왔음을 알렸다. 소식을 들은 선생은 환하게 웃었다. 아니, 빛났다. 어제 빌렘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던 선생은 그 이후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마당에 죄를 용서받았다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렘 신부와 만남이 그에게 큰 의미가 된 것만은 분명했다. 지금은 그가 믿는 신, 예수가 인류를 위해 수난당하고 죽임당한 사건을 묵상하는 시기라고 했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신! 그토록 나약한 신을 믿는다는 것 역시 이해되지 않았지만, 선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다. 도통 알 수 없는 말을 들으며 빌렘 신부에게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맞이했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마치 부모와 자식의 만남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말로 무언가 예식을 치렀다. 빌렘 신부가 무어라 말하면 선생이 응답하는 식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 따스한 온기와 빛이 어리는 듯하더니, 신부가 선생의 입에 무언가를 넣어 주었다. 그러자 선생은 어제보다 더 큰 빛에 둘러싸였다. 저것이 선생이 말하는 평화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표정,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표정이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일까? 선생이 믿는 신을 믿으면 나도 저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선생은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인가?

덧) 안중근 토마스는 1910년 3월 26일, 그해 성토요일에 사형당했다. 사형 전, 복사로 함께했던 빌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고, 미사와 영성체, 노자성체를 받았다. 감옥에서 쓰기 시작한《동양평화론》은 완성되지 못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5년 3월 30일 이종순 요셉 신부(46세)
- 2021년 3월 24일 김병도 프란치스코 몬시뇰(87세)

옹기장학회 기금 출연 안내

옹기장학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장학회입니다. 아시아, 특히 북방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신언 몬시뇰 / **이사장:** 정순택 대주교

옹기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정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문의: 02)727-2525 옹기장학회 사무국

계좌: 국민은행 375301-04-076713, 우리은행 454-037208-13-001, 신한은행 140-008-715396, 농협 386-01-012782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교구청 알림

2025 생명수호 일러스트 공모전

주제: 가톨릭 생명윤리에 맞는 생명사랑, 생명존중, 생명수호를 주제로 그린 순수 창작 일러스트
대상: 생명수호에 관심있는 누구나(가톨릭신자 아니어도 가능) / **접수:** 7월 16일~31일
시상내역: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1편(150만원), 우수상 1편(100만원), 장려상 3편(각 50만원)
자세한 내용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 참조

생명을 이야기하는 '우리농 물품학교'

때: 3월 25일(화), 4월 1일(화) 오전 10시 시작
대상: 본당 우리농 생활공동체 활동가, 우리농 회원
곳: 교구청 501호 / **회비:** 2만원(우리은행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주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밥상'
문의: 02)727-2275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wrn.or.kr) 참조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교육기간: 4월 9일부터 매주(수) 오전 10시(10주 과정)
곳: 천주교 노동사목회관 6층 경찰사목위원회(보문동)
접수: 4월 2일(수)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신청): 02)742-9471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https://catholicpolice.or.kr/html/dh/cam03) 참조

가톨릭교육자의 날

내용: 서울 가톨릭초등 · 중등교육자들이 다 함께 모여 미사 · 특강을 통해 위로받고 신앙을 다지는 시간
대상: 서울시내 초 · 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때: 4월 26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곳: 성심여자중 · 고등학교(용산) / **회비:** 3만원
미사: 이경상 주교, 담당사제 공동 집전
신청: 온라인 신청서(https://www.kycs.or.kr) 팝업창 참조
문의: 02)566-5456, 02)553-7320 학교사목부(CCE)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5 상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세례 받은지 3개월 이상된 신자)
신청기간: 구비서류 지참 후 사무실 내방 접수(3월 30일 10시~17시, 성당마당 부스 현장접수 / 자세한 일정과 제출서류는 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교육일정: 4월 27일~6월 1일 13시30분~15시30분(5주간 / 5월 4일 휴강)
교리장소: 꼬스트홀 / 조별나눔-교육관
견진성사: 6월 8일(주일) 오후 2시, 대성전
문의: 02)774-1784 성당 사무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형주 외 12명 〈빛을 찾아서〉: 전관
전시일정: 3월 28일(금)~4월 6일(주일)

서울대교구 성소후원회 50주년 기념 미사

때, 곳: 4월 4일(금) 오후 2시, 명동대성당
집전: 정순택 대주교 / **문의:** 02)727-2123

중, 고등 가톨릭학생회 모집

매월 두번째 토요일 혜화동 모임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학교사목부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ycscell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 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4월 3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꼬스트홀) / **집전:** 윤윤상 신부(대만 파견)
문의: 02)727-2407, 2409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4월 11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727-2073(www.hospitalpastoralcommittee.co.kr)

민족화해위원회

1) 25 평화의 바람 기행(3기) 참가자 모집
대상: 도보순례 가능한 누구나 40명 / **회비:** 7만원
때: 4월 11일(금)~12일(토)
곳: 파주 · 연천 · 철원접경지역 순례(1박2일)
문자(신청): 010-4682-2412(폼발송) / **문의:** 02)753-0815
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 문의: 02)727-2420

1458차	3월 25일(화) 19시, 명동대성당(서울교구 장엄 본당)
1459차	4월 1일(화) 19시, 명동대성당(서울교구 신천 본당)

3)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3월 28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신청: 3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선착순 접수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 **회비:** 1인 7천원

일시	코스	비고
4월 1일(화)	2코스 생명의 길	·
4월 5일(토)	3코스 일치의 길	3-2구간(노고산~삼성산) 일부구간 대중교통 이용
4월 12일(토)	3코스 일치의 길	3-1구간
4월 26일(토)	1코스 말씀의 길	·
4월 30일(수)	저녁愛 순례길	낙산성곽길 코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노숙인과 쪽방촌 사람들
때, 곳: 3월 27일(목) 19시, 명동대성당(주교좌)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요셉나눔재단법인 / **문의:** 070-4688-3428

2025 토요 성모신심 미사와 20단 묵주기도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명동)
유럽 성모성지 순례피정: 8월 13일~23일(**피정 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4월 모임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대상: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 / **강사:** 이수산나 수녀
주제: 희망의 순례, 홀로 하느님과 함께
때, 곳: 4월 1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문의:** 02)727-2031 박스테파니아 수녀

영유아들의 희년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유아 세례식

세례일자 및 장소: 5월 5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상: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2019년 5월 5일 생 이전 어린이 / 선착순 100명
집전: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
부모 사전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3회)
신청: 본당 게시 포스터 QR코드 / **문의:** 02)727-2110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02)763-7966 초등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가톨릭상담봉사자 교육
때: 매주(화) 오후 2시~4시(1, 2학기 / 총 16주)
회비: 학기당 8만원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뮤지컬(이슬), 심리강좌(윤제연), 이태리어 배우기(류젬마), 집단상담(최현정), 해금(정겨운)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교육신청
3)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4) 김기화 신부의 영성강좌
주제: 성모 마리아는 누구이신가
때: 4월 3일, 4월 24일, 5월 1일, 5월 15일 19시~21시
곳: 영성센터 B204호(명동) / **문의:** 010-4100-8807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자비 사도모임(팔로티회)
때: 3월 25일(화) 13시(강의·성시간)~15시(미사)
곳: 프란치스코 회관(정동) 6층 / 문의: 031)707-4450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4월 1일~30일 / 문의: 010-8867-3217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봉하령 신부(작은예수회)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강의·안수

3지구 녹번동성당 기도회 무료 피정
내용: 특강, 찬양, 미사, 안수 / 문의: 010-2452-3359
때, 곳: 3월 26일(수) 18시20분~20시30분, 녹번동성당 지하강당 / 강사: 양창우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진상 영성센터 4계절 성장 피정-봄
주제: 봄-생명의 움틈, 의존과 모성 돌봄
때, 곳: 4월 11일(금) 17시~13일(주일) 13시(2박3일),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지도: 허성준 신부(외)
때: 5월 8일(목)~11일(주일) / 회비: 38만원(1인1실)
곳: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왜관 수도원 내)
문의: 010-8599-3127 한릿다(왜관 성 베네딕도회)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금요철야기도회
강사: 김종용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3월 28일(금)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율동, 찬양, 고해성사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속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곳: 4월 25일(금)~27일(주일) 2박3일, 스승예수 피정의 집(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원양1로 816)
4월 17일까지 접수(1인1실) / 문의: 02)2135-9398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4월 4일 10시~15시30분
사순 피정	3월 25일·4월 1일 10시~15시30분
수난기와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3월 28일~30일(2박3일)
단식 피정	4월 9일~13일(4박5일)
성지순례(크로아티아·메주고리예)	4월 27일~5월 9일(12박13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3월 24일~4월 28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02)756-3473, 010-2759-3473

3월 24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끊음 1	배영삼 수녀
3월 31일(월)	세속정신 없애기 2	이순옥 수녀
4월 7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김경진 신부
4월 14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최미경 수녀
4월 21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박찬복 신부
4월 28일(월)	봉헌의 생활화	이정순 수녀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제주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순례(성지·자연), 쉼, 말씀초대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사목위원·구반장)
때: 4월 23일~25일·5월 21일~23일·6월 9일~11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2025년 대희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곳: 지혜의 샘(부천시 경인로 61-1 / 전철 1호선 중동역 5분거리) / 문의: 010-3248-9705
1) 성모님께 33일 봉헌 2차 감사 피정: 3월 31일(월)
강사: 이무현 신부, 한영임 회장
2) 성모님께 33일 3차 봉헌: 4월 2일~5월 4일
매일 오전 10시~12시-묵주기도 20단, **매일 오후** 1시~5시-봉헌 기도(강의·기도·파견미사)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4월 5일~8일(추자도)·4월 10일~12일·4월 14일~16일·4월 25일~27일·4월 29일~5월 2일(추)·5월 9일~11일·5월 13일~15일·5월 17일~20일(추)·5월 21일~23일(성모의밤 포함)·5월 24일~26일·6월 2일~4일·6월 6일~8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4월 7일~9일·5월 10일~12일·5월 15일~17일·5월 20일~22일·6월 15일~17일(추자도 포함)·6월 20일~22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4월 12일~15일·4월 27일~30일·5월 4일~7일·5월 26일~29일·6월 1일~4일·9월 9일~12일, **우도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9일~21일, 7월 31일~8월 3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3월 25일	이상기 회장	4월 1일	이재을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 010-3340-0201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3월 28일(금)~30일(주일)
성경 완독	4월 4일(금)~12일(토), 5월 9일(금)~17일(토)

수도원 청년 피정 / 문의: 010-9816-0072
대상: 34세 미만 미혼 여성 / 회비: 2만원
곳: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수도원 부활 전례 피정	4월 19일(토) 19시~20일(주일)
사순시기 개인 피정	1박 2일 일정 협의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36차	4월 11일(금)~19일(토)	문의: 061)373-3001, 010-6216-5346
제137차	5월 16일(금)~24일(토)	

예수회센터 하루 피정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단체 환영합니다
각 날짜별로 접수 받습니다 / http://center.jesuit.kr

수요 피정	3월 26일, 4월 30일, 5월 28일, 6월 25일 19시~21시(20시30분 미사)	문의(접수): 02)3276-7733
토요 피정	4월 12일, 5월 10일, 6월 14일 10시~15시30분(15시 미사)	

가정선교회 4월 피정·영성학교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때, 곳: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1층·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4월 2일(수) / 박현민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4월 5일(토) / 임문철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4월 26일(토) / 하성용 신부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4월 15일·29일 (화) 13시~16시30분 양승국 신부 / 회비 있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문의: 010-9099-2337(www.jesumaum.org)

사순 피정(1박2일)	4월 4일(금)~5일(토)
예수마음기도(2박3일)	4월 25일(금)~27일(주일)
이냐시오 영신수련(4박5일)	4월 25일(금)~29일(화)
생명력 피정(1박2일)	4월 26일(토)~27일(주일)
하루 피정 '숨'	4월 25일(금)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때: 4월 6일(주일) 13시30분~16시20분 / 진행: 안준환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주제: 희망과 찬양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3308-9849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 음악원(주최, 신촌)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 7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성령 세미나 / 문의: 02)874-6346
때, 곳: 3월 1일~5월 17일 (토) 12시~17시30분(중식 무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회비: 2만5천원(교재비 별도)
주최: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이콘 수강생 모집(입문반-실기)
때: 4월 3일~6월 5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곳: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어른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어른 초등학교·중학교(교육부 학력인정), 영어기초 ABC, 한글반, 시니어종이접기조형 지도자과정, 닥종이인형공예 / 문의: 02)727-2471

여의도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때, 곳: 4월 24일(목)~25일(금) 8시30분~18시, 여의도성모병원 본관 4층 강당 / 문의: 02)3779-1804, 2558
4월 14일(월)까지 선착순 00명 접수
회비: 5만원·현장접수 6만원
계좌: 우리 832-04-100745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 등록 후 취소 불가, 주차 불가
카카오채널: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4월 14일(월)~25일(금) / 전형일: 5월 16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우리소리 국악성가 단원 모집 / 문의: 010-3909-1203
강사: 김선미 명창, 김윤아 소프라노
때, 곳: (월) 19시, 전철 7호선 강남구청역

성 김대건 성가단 상반기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만 50세 미만)
때, 곳: 매주(수) 19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문의:** 010-2272-0180

2025년 상반기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소속 /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과 함께할 남자 어린이를 기다립니다
대상: 초2~5학년 남자(가톨릭 신자) / 010-7242-6027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3월 26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3월 27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곳: 3월 28일(금) 14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3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3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평화묘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묘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5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묘주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02)2241-7841
때, 곳: 4월 5일(토) 오전 11시, 평화묘원(내) 야외미사장 /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신부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3월 24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김호찬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김재화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남대문성당 '우리물터' 심리상담
심리, 정서(우울·불안), 가족, 개인상담
상담: 매주(목) 11시~ 16시 / **문의(예약):** 010-5582-3562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노고산 성지 신심미사 시간 변경 안내
때, 곳: 매주(목) 14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 성당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성라파엘상담소 / 문의: 070-4248-7573
우울,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 심리검사
법정 저소득 가정 무료 상담 / 안양(중앙성당) 1만원·분당(구미동성당) 2만원·서울 신월동 0~2만원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4월 26일(토) 15시(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정규입학: 초4~고2 / 미국, 아일랜드(6개월 이상)

가톨릭여성연합회 3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박준양 신부(레지오마리애 서울 세나뚜스 담당)
때: 3월 25일(화) 10시30분 / **문의:** 02)778-7543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주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 그리고 구원을 비는 기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 기관

직원모집

바오로선교회 사무장 모집
대상: 세례를 받으신 교우이며 믿음으로 함께 하실 분 / 컴퓨터 활용 및 회계업무 가능자 우대
문의: 010-2326-2949 김영애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 서울아지트 직원 모집
분야: 후원자 회계 및 응대 담당 / **이메일:** ajit@ajit.or.kr
후원자 회계 및 응대 관련 경력 우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ajit.or.kr) 참조

서울대교구청 행정점검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회계 관련 경력자 우대
분야: 회계감사 및 재무분석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3월 30일(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편집국	북디자인 및 기타 편집디자인 / 전문 편집
제작국	주보 및 각종 인쇄물 디자인·제작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도미니코회 천주의 모친 봉쇄 수도원	4월 26일(토)~27일(주일) / 피정	충북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5길 43	010-6561-2906(dominicocorea.modoo.at)
미리내 천주 성심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령강림사도수녀회	3월 25일(화) 16시	마리스타 교육관	010-7165-0166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한국외방선교회	수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및 공연 게재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게재신청 – 문화행사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잃은 양의 목자,
예수님의 제자 되기!

마태오복음

곽승룡 지음
기쁜소식 | 364쪽 | 2만3천원
문의: 02)762-1194

마르코복음에는 주님의 삶에 대한 열렬한 묘사가 있는 반면, 마태오복음에서는 더 많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 과감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졌으며 차분한 성찰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은 개인과 그룹에 각각 적절한 성경 공부의 방법을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마태오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1

깊고 고요한 성찰의 공간,
수도원 이야기

이관술 지음
생활성서사 | 312쪽 | 2만원
문의: 02)945-5987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원은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현미경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수도원의 역사와 현재를 이탈리아 성지 순례 가이드인 작가의 유려한 설명과 생생한 사진으로 전달해 준다. 이 책을 통해 수도 영성과 지혜가 깃든 장소인 수도원을 '보는' 방법을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음악회

서울시합창단

합창, 피어나다

때: 4월 16일(수)~17일(목) 19시30분
곳: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문의: 02)399-1000
입장권: R석 4만원, S석 3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명작으로 손꼽히는 합창곡을 서울시합창단의 멋진 화음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아름다우면서도 강렬한 리듬의 그레고리안 성가, 멘델스존의 다양한 합창 기법이 담긴 시편 42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국 가곡과 흑인 영가까지 곁들어져 감동으로 피어나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합창의 순간을 선사한다.

오페라

서울시오페라단 창단 40주년 기념

파우스트

때: 4월 10일(목)~13일(주일) 평일 19시30분, 주말 17시 /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입장권: SUITE석 17만원,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과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구노의 음악으로 탄생한 <파우스트>는 인간 심리에 관한 치열한 묘사가 돋보이는 역작이다. 주인공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젊음을 얻게 된다는 내용으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철학이 담겨있다. 이번 무대는 오페라와 연극을 융합한 오플레이(O'play; 오페라+연극) 형식으로 선보인다.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참여 이벤트

함께 기도하는 밤

더 자세한 내용은 큐알(QR) 스캔

[4월 이벤트 안내]
· 성체조배: 4월 3일(목) 19시40분~20시30분, 주교좌 명동대성당
· 이벤트 응모 기간: 4월 10일(목)까지 / 이메일(thursnight@catholic.kr) 응모

[시상] 함께상: 인증샷 일러스트 엽서 10매,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 2권
기도상: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가톨릭출판사, 이영제 신부 지음) 2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밤'", "이 뜻깊은 시간을 많은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요." 매월 첫 목요일 밤을 가장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짝꿍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밤을 보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지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기록하고 나누어주세요! 짝꿍과 함께 찍은 인증샷과 느낀점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매월 추첨을 통해 정성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2025년도 초등부 첫영성체 교리반 신청

·대 상 : 명동에 교적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어린이
·교리시작 :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교리일정 :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 참례 후 11시부터 12시까지, 5개월간
·신청기간 : 3월 16일(주일) ~ 4월 13일(주일)
·신청장소 : 본당 사무실 (※선착순 30명)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 교적증명서 함께 제출 필수

◉ 2025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견진성사 : 6월 8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교리시간 : 4월 27일 ~ 6월 1일 (매 주일) 5주간 (☞ 5월 4일 휴강)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 오후 1시 40분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5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신청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 교우 (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난 교우부터 신청 可)☞2025년 1월 세례자까지
·교리장소 : 꼬스트홀
·교리교재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 가톨릭출판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著
※교재는 성물방이나 가톨릭출판사(www.catholicbook.kr)에서 각자 구입하여 지참
·신청방법 : 사전 · 온라인 · 전화 신청 불가 !
① 현장 접수 : 3월 30일(주일) / 성당마당 부스 오전 10시~오후 5시
② 방문 접수 : 3월 11일(화) ~ 4월 20일(주일) 본당 사무실 (월요일 휴무)
·구비서류 :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 가능 !**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신자	① 증명(또는 반명함)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교적 본당
	④ 견진 대부모님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견진본당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타 본당 교적신자	상기 구비서류(①~⑤)	
	⑥ 신청자 본인 교적증명서	교적 본당
	⑦ 견진의뢰서	

※'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장애(=조당)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함이니 '상세내역'으로 발급 후 밀봉하여 제출하십시오. (☞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사본도 제출 가능)
※'⑦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돼 있으며, 교적 본당 사무실을 통해 반드시 주임 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5월 18일(주일)까지 '접수비(현금 10,000원)'와 '견진성사 감사예물'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대상 : 남녀 가톨릭 신자 (60년 이후 출생자)
·연 습 : 매주 금 오후 7~9시, 토 오후 5~6시
·활 동 : 매주 토 오후 6시 주일미사 및 사제 · 교우 장례미사
·접수마감 : 3/23(일)까지
·오 디 션 : 3/29(토) 오후 7시 (지원서 제출자에 한함)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3층 명례방
※자유곡 악보 2부, 교적증명서(밀봉 요망) 지참
·접수문의 : 단 장 ☎ 010-3386-6140 (※문자 요망)
부단장 ☎ 010-5315-3435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평일미사독서단 남성 단원 모집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50세 이하 남성 신자로서 평일미사(오후6시, 7시) 독서 전례 봉사가 가능한 자
·서류 : 지원신청서(이메일 제출)☞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교적증명서(오디션 당일제출)☞일정은 개별 공지 예정
·마감 : 3/26(수)까지
·문의 : 단장 keshiri@naver.com

◉ 아미쿠스 주일학교 남자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문 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 받으신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문 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분과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명동성당 행사 및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종현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회합 ☎ 010-2838-6401
·대건회 : 매월 1회 비정규일 회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회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회합 ☎ 010-8713-2000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회합 ☎ 010-3687-2322
·만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회합 ☎ 010-8611-4097

◉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옹기장학회 월례미사는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회원들의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회원들의 가정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일시/장소 : 3/24월) 오전 11시 / 파밀리아 채플
·주례 : 김호찬 신부님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 김재화 신부님
·문의 : 옹기장학회 사무국 ☎ 727-2525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 오 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18	봉헌 : 217, 236, 218	성체 : 187, 167, 156	파견 : 123

◉ 2025 명동대성당 사순 특강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8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3월 24일 (월)	**선교 순례의 희망** 박용만 (실바노) - 같이 걷는 길 대표, 前 두산그룹 회장 -

《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감사 미사 》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12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교황 선출 감사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3월 26일(수) 오후 6시 / 대성전
· 주례 : 주교단과 사제단 공동 집전

《 WYD '주님을 위한 24시간' 청년 행사 》

· 일시 : 3월 28일(금) 오후 7시 / 대성전
※본 행사 관계로 당일 오후 6시 미사후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 미사 봉헌 장소 변경 》

3월 26일(수), 3월 28일(금) 오후 7시 미사는 '파밀리아 채플'에서 봉헌합니다.

◉ 2025년 4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402호	문재현 (바오로) 신부
주일반	오후 4:00	교구청본관 402호	한 크리스티나 수녀

· 수요/주일반 택1,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4/6(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501호
· 첫 수업 : 4/10(목) 19:30, 4/13(일) 16: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준비물 : 교재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2025년 초등부 첫영성체 교리반 신청 및 2025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

《 한식 합동 위령 미사 》

4월 5일(토) 「한식(寒食)」 당일 거행되는 오전 미사는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됩니다. 합동 위령 미사예물을 접수하실 분들은 **4월 4일(금)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당일 합동 위령 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사순 시기(3월 5일~4월 16일) 판공성사

※재의 수요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명동교적신자 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

◉ 부활 집중 판공성사

날 짜	시 간	장 소
4월 13일(주일)	10:00~20:00	상설고해소
4월 14일(월)	11:00~20:00	
4월 15일(화)		
4월 16일(수)		

※고해성사 휴무 : 4월 17일(목)~4월 19일(토) (성삼일)
※4월 20일(주일)부터 고해성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 4월 21일(월)은 성직자 · 수도자를 위한 고해성사는 없음.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네 번째 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본당 성소자들과 후원 회원들을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 성소후원회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사제 · 수도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3/10-3/16).....16,925,000
- 사순 제 2 주일 헌금.....35,427,000
- 감사헌금 (3/10-3/16).....5,325,000

김 모니카 / 김 바오로 / 박 미카엘라
신 베르다 / 임 사무엘 / 조 이냐시오로올라
익명(1)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청년미사)
평일미사	월	07:00, 18:00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Sun.	08:30 - 08:50
Sat.	16:00 - 17:00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 1% 행복발견 】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 발견하기'

내게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용서한 후 찾아온 평안이 행복입니다.